

좋은 금요일 부르는 주온, 아이아미아미
광주문화실험
 대표번호 1644-7990
 현대문화, 문화지점, 양산지점, 양양지점, 양양지점, 양양지점, 양양지점, 양양지점, 양양지점

광남일보

NEW WORLD
 마크로경제
 과학에 예술을 더하라
 뉴월드 퍼크골프 062)515-9600

보해양조, '택시운전자X요새주 2025' 공개 6
 곡성, 귀농·귀촌인 성공 정착 돕는다 9
 나주,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로 신뢰 강화 10
 '몸의 미학' 박치호 전시 광주 첫 선 11
 조간 제7812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음력 2월 29일)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왼쪽)와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담양군수 재선거, 오늘부터 사전투표...민주당 이재종 vs 혁신당 정철원

“담양 이끌 책임자”...표심잡기 총력전

4·2 담양군수 재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와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후보는 이날 오전 전남 담양군 문화회관 광장에서 주민들에게 소중한 한표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내란 종식과 함께 민주당 정권 교체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자 담양 발전 미래 비전과 정책을 갖춘 행정 책임자를 선출하는 지역 발전 기회”라며 “더 낮은 자세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섬기면서 검증된 실력과 탄탄한 중앙 네트워크로 국비를 확보하고 담양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고 주민들에게 지지를 당부했다.

다만 이 후보는 “산불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감안해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기간 조율한 선거캠페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담양 최초의 당대당 선거로 ‘더 크게, 더 신나게’ 울동 등 다양한 홍보방안으로 주민들을 만나고자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담양군민들도 국가적 재난 상황에 충분히 공감하며 이재종 선거캠프의

이 “검증된 실력·탄탄한 중앙 인맥으로 예산 확보” 정 “3선 군의원으로 검증...동행하는 정치 하겠다”

결정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면서 “담양도 산불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군정에 돌입하면 최우선적으로 현재 추진중인 산불대응센터의 차질없는 설치를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지도부가 총출동해 정철원 후보 지원사격에 연일 나서고 있다. 이날도 정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원회-선대위 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약속했다.

김 권한대행은 담양중앙공원에서 가진 정철원 후보 지지 연설에서 정 후보가 무소속 3선임을 강조하며 “담양에서 태어나서 담양에서 자라고, 담양에서 뼈를 묻은 사람. 이런 사람이 담양군수가 돼야 하지 않겠나”고 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황운하 원내대표 또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치의식이 높은 호남의 유권자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1년 남은 담양군 인기 동안 아무런 시행

표심의 향방이다.

최 예비후보는 경선과정이 불공정했다며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고 혁신당 정 후보 캠프에 합류, 선거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한편 4월 2일 전남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 1곳(담양군), 기초의원 3곳(광양 다·담양 라·고흥 나)에서 재보선이 진행된다. 이 가운데 담양 라 선거구는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보선기 사전투표는 28일~29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4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유권자에게 가정으로 우편 배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남도선관위는 재·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담양=조성웅 기자 jwnnews@gwangnam.co.kr

토·일 신문 쉽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 계속

작년 전남 고향사랑모금 187억 달성

2년 연속 전국 1위
 담양군 23억원 '최고'

전남 시·군별 고향사랑 기부 현황



지난해 전남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장 많이 모금한 지역으로 꼽혔다. 전남 기초단체 중에서는 담양군의 모금실적이 가장 많았다. 담양의 모금액은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도 1위였다.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27일 JN인포그래픽 ‘기부할 땐~ 전남 어때’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통계를 시각화해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은 879억3000만원이었으며, 그중 전남은 187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모금액을 기록했다. 이어 경북(103억9000만원), 전북(93억2000만원), 경남(75억9000만원)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도 지역이 특·광역시 지역보다 많은 모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시·군별 고향사랑 기부 현황을 살펴보면, 담양군이 23억원으로 가장 많은 모금액을 기록했다. 영암군(18억원), 무안군(15억6000만원), 곡성군(10억5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양, 영암, 무안은 전국 상위 5개 기초자치체에 포함될 만큼 전남 지역의 고향사랑 기부는 활발했다.

전남의 고향사랑 답례품 중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품목은 영암군의 쌀(총

4177건, 약 1억2700만원)이었다. 그의 완도군의 활전복과 김 세트, 영광군의 굴비, 여수시의 돌산갯김치 등도 인기가 높았다.

전남에 고향사랑 기부를 가장 많이 한 지역은 경기(36억5000만원, 19.5%)였으며, 서울(36억1000만원, 19.3%), 광주(35억원, 18.6%), 전남 타 시·군(31억1000만원, 16.6%) 순이었다.

2024년 처음으로 도입된 지정기부는 2025년 3월 현재 전국 총 70개의 지정기부사업이 진행 중이며, 그중 전남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19개(전국 1위)로 나타났다. 지정기부는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해 하는 기부를 의미한다.

JN인포그래픽은 지역의 주요 현안과 이슈를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해 제공하고 있으며, 전남연구원 홈페이지(www.jni.re.kr)와 인스타그램(@jni.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목포시·신안군, 권한대행 체제 돌입

박용호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27일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목포시와 신안군이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한다.

공직선거법 210조의 특례조항은 ‘보궐선거의 실시시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보선 실시 여부는 해당 선거위에서 결정하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6월로 예정돼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선거비용 등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박 시장과 박 군수는 직위를 상실하게 돼 목포시는 이상진 부시장, 신안군은 김대인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다만 두 단체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10월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210조의 특례조항은 ‘보궐선거의 실시시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보선 실시 여부는 해당 선거위에서 결정하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6월로 예정돼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선거비용 등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제21회 영산강사랑사·도민
 *** 제9회 나주사랑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
한마음 걷기대회
 2025. 3. 29. 09:00~11:30

다양한 경품지급
 참가자 행운권 추첨

‘영산강 환경정화 캠페인’ 참가학생에게
 -> 자원봉사(1365) 2시간 인정

행사장소 빛가람 호수공원
 (전남 나주시 호수로 77)

참가대상 남녀노소 누구나(참가비 없음)

접수기간 2025년 2월 17일(월) ~ 3월 27일(목) 까지

접수방법 광남일보 홈페이지 배너 및 방문창
 (www.gwangnam.co.kr)

문의 광남일보 사연과 T. 062)370-7090

※ 휴선 시에도 진행합니다.
 ※ 위 일정은 여건이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최·주관: 광남일보 | (사)광남문화재단 | 거라나고 | 광남일보 TV | 후원: 나주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 대한적십자사 광주광역시지부,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 나주시 임업유계지협의회